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6.10.14.(수)	
담당부서	은행리스크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국 장	황준하 (02-3145-8350)
		담당자	팀 장	김웅겸 (02-3145-8330)

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(RCAP) 결과

- '25.10월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는 **우리나라** 등 6개국을 대상으로 **단순기본자본비율**에 대한 **규제이행평가(RCAP)**를 실시
- 우리나라는 세부항목 포함 종합등급까지 **최고등급인 'Compliant(준수)'** 획득

1 평가 개요

◆ 규제이행평가(RCAP : 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)

-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는 바젤기준 이행을 통한 글로벌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바젤 회원국(28개, EU포함)을 대상으로 바젤 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규제이행평가를 실시중 (👉 붙임 : 바젤위원회의 규제이행평가 참고)

-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는 '25.4분기부터 우리나라 등 6개국*'을 대상으로 '단순기본자본비율'에 대한 규제이행평가(RCAP)를 실시

* 한국, 영국, 일본, 호주, 캐나다, 스위스 등 6개국(국가별 평가단을 두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평가단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평가하는 최초의 그룹형 평가방식 실시)

- 그간 금감원은 자체평가 및 평가단* 평가(~'26.6월) 등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개정 등 신속히 대응

* 평가단 : (단장) 1명(港 HKMA), (평가위원) 4명(브라질, 스웨덴, 인도, 스페인 중앙은행)

-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의 평가를 마무리한 후 BCBS 정례회의(9.28일)에서 평가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대외 공표(10.13일)

※ (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내용)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기본자본(Tier 1)을 3% 이상 유지토록 의무화<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제한 목적>

$$\text{단순기본자본비율(LEV)} = \frac{\text{기본자본(Tier 1 capital)}}{\text{총 위험노출액(Exposure)}} \geq 3\%$$

→ (국내도입 현황) 국내은행은 '15년부터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산출·공시(매분기)하고, '18년부터 경영지도비율(3%)로 도입

2 평가 결과

- 바젤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 비율 규제 체계는 바젤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, 종합등급*은 최고 등급인 'Compliant(준수)'를 부여

* 세부 부문별로도 3개 부문 모두 'Compliant(준수)'를 획득

우리나라 최종평가 결과	등급 ^{주)}
종합등급	준수(Compliant)
① 정의, 적용 및 산출 (Definitions and application, and calculation)	준수(Compliant)
② 익스포저 측정 (Exposure Measurement)	준수(Compliant)
③ 공시 요건 (Disclosure Requirements)	준수(Compliant)

주) 4등급으로 분류 : ① 준수(Compliant) / ② 대체로 준수(Largely Compliant) / ③ 부분 미준수(Partially Non-Compliant) / ④ 미준수(Non-Compliant)

※ 지적사항(Findings) 1개*는 '비중요 사항'으로 평가 등급에 영향 없음

*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 차이(한국 : 20%, 바젤 : 50%)가 존재하나,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

▶ 과거 우리나라의 RCAP 평가 결과(종합등급)

- ① '16년 : (자본) 대체로 준수(LC) / (유동성커버리지비율) 준수(C)
- ② '24년 : (순안정자금조달비율) 준수(C) / (거액익스포저) 대체로 준수(LC)

3 향후 계획

- 금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,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'27년중 예정된 위험가중자산(RWA)에 대한 RCAP 평가도 차질없이 대응할 계획
- 아울러, 향후에도 바젤 국제기준의 제·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- **(개요)** 바젤위원회는 '12년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바젤 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규제이행평가(RCAP) 실시 中
 - ('12~'16년) 회원국의 자본규제 및 LCR 규제에 대한 RCAP을 실시(우리나라는 '16년에 평가*)
 - * 평가결과 : (자본) 대체로 준수(Largely Compliant), (LCR) 준수(Compliant)
 - ('24년) NSFR/LEX에 대한 RCAP을 실시(우리나라는 '24년 평가*)
 - * 평가결과 : (NSFR) 준수(Compliant), (LEX) 대체로 준수(Largely Compliant)
- **(평가기준)** 바젤기준이 각국 감독규정 등에 반영된 정도 및 반영시 법적 구속력 여부를 4단계*로 평가
 - * 준수(Compliant) / 대체로 준수(Largely Compliant) / 부분 미준수(Partially Non-Compliant) / 미준수(Non-Compliant)
 - 바젤기준이 각국 감독규정 및 세칙이 아닌 모범규준 및 해설서 등 행정지도로 규정시 법적 구속력에서 낮은 평가
- **(평가방법)** 국내 관련 법규와 바젤기준서를 비교하여 문구상 또는 의미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(조문별로 line-by-line 비교)
 - 바젤기준과 상이(deviations/gaps)한 지적사항(finding)과, 경미한 차이(difference)에 불과한 관찰사항(observation)으로 구분
- **(평가절차)** 평가 대상국가가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평가단이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산정
 - ① 자체평가(2~3개월 소요) : 규제 정합성 관련 자체평가 및 근거자료 제출
 - ② 서면·현장평가, 평가보고서 완성(4~6개월 소요) : 바젤회원국 감독당국 직원으로 구성된 RCAP 평가단이 주관하며, 현장평가는 통상 약 1주일 소요
 - ③ 평가결과 발표 : 바젤위원회 정책기준그룹(PSG)의 검토 및 바젤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보고서 및 등급을 대외 발표